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관점으로 살펴본 흥지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연구

손 서 후*

목 차

- I. 서론
- II. 흥지의 개념
- III. 흥지와 물의 연관성
- IV. 흥지 사례 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 본 연구는 흥지의 개념과 구조적 특징을 자연과 생명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그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활동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풍수의 입지 논리와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성립 여부를 바탕으로 흥지가 조성되는 공간적 특징과 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청오경(靑鳥經)』, 『금낭경(錦囊經)』, 『지리인자수지(地理人子須知)』, 『설심부(雪心賦)』, 『주역(周易)』 등의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풍수에서 물과 관련된 득수(得水)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흥지에 자리하고 있는 음양택(陰陽宅)의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흥지에 대한 추상적 인식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였다. 그 결과, 주산의 기운을 받지 못하거나 용호(龍虎)의 보호가 미약한 곳, 득수를 이루지 못한 지형에서 흥지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함은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설계학과 박사과정(afrofia@naver.com)

투고일: 2024. 10. 25. 심사완료일: 2025. 05. 01. 게재확정일: 2025. 06. 30.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8..161>

인간의 행위나 삶의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홍지 개념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풍수적 보완 수단인 비보(裨補)를 통해 일정 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가변적 공간 개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유사 과학의 한계를 넘어 공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조명하는 데 필요한 인문학적 탐구의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수가 인간뿐만 아니라 건축과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화합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이자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풍수, 홍지, 음택, 양택, 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풍수는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인간의 통찰력과 활용의 지혜를 자연에 표면화시킨 공간 미학이다.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자연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음양오행의 전통 사유 방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가늠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예로부터 풍수는 주거지나 묘지,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주요한 입지 조건의 도구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풍수의 길지와 상반되는 개념인 홍지는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장소나 영역 혹은 그 범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개인의 건강과 재물은 물론 삶의 다양한 측면에 걸쳐 불리한 조건이나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공간이다.

이렇듯 홍지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으로 국한된 개념이 아닌, 개인의 심리 상태나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형이상학적 담론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홍지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그 유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현상에 따른 인과론적 추론과 그에 관한 담론을 경험이 전개하는 인식의 궤적에 담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홍지에 관해 누구나 쉽고 명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개념과 의미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풍수에 관한 신뢰성과 활용의 가치를 현대인의 눈높이로 상정하고자 한다. 홍지에 관한 이해는 자연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의 원활한 상생과 조화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더 나은 삶의 질과 환경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풍수가 잠재적인 미래 발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공리적 차원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홍지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올바른 입지 환경과 주거환경의 조건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풍수 고전인 『청오경』과 『금낭경』, 『지리인자수지』, 『설심부』, 『산림경제』, 『택리지』, 『주역』 등을 바탕으로 길지와 홍지의 이론적 개념을 정의하고, 천인호(2020), 지중학(2013), 박정해(2015) 등 기존 풍수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실제 홍지에 자리하고 있는 음양택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풍수 연구는 주로 현대 도시 환경에서의 풍수 적용, 특정 지형이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물이 길지 형성에 미치는 역할 등 풍수의 개별적 요소에 국한된 분석이었다면, 본 연구는 홍지라는 입지 조건이 인간에게 미치는 심리적·생리적·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개인의 행복과 성공은 별개의 개념이다. 성공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성공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념이라면, 행복은 자의적 관점의 자아 추구 개념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모두 측정 불가능한 정성적 영역의 개념이지만, 성공은

타인의 공통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 객관적 지표에 따른 비교평가가 가능¹⁾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역사와 시대적 인물의 삶을 반추해 봄으로써 흥지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흥지의 개념

1. 흥지의 의미

풍수에서는 길지의 반대 개념이자 땅에 불길한 기운이 담긴 터를 흥지라 한다. 기혈(忌穴) 혹은 소기(所忌)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모두 흥지를 일컫는 의미로 해석된다. 풍수에서 언급되고 있는 길지 구성의 전제 조건은 무엇보다 용(龍)이 살아있는 생룡(生龍)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변의 사격(砂格)과 지형지세(地形地勢)가 상호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고, 용진혈적(龍眞穴)의 해야만 비로소 지기가 충만한 혈이 완성된다고 판단한다. 이와 달리 흥지는 주산을 포함한 주변 사격의 결함과 풍수 논리의 구조적 모순이 배인 곳이다. 이를 두고 『청오경』에서는 “생기(生氣)가 모이지 않는 혈은 뼈가 썩고, 생기가 미치지 못한 혈은 살아 있는 사람이 모두 멸절(滅絶)하게 되고, 생기가 날아가고 새 나가는 혈은 관곽(關柵)이 뒤집히게 되고, 생기가 돌아서 배반하고 막힌 혈은 찬물이 방울방울 내릴 것이니, 그것이 바로 두렵고 걱정 되는 일들이다. 어찌 조심하지 않을 수 있으랴”²⁾라고 밝히고 있다.

혈이란 생기가 응결된 곳이다. 혈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연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기(氣)는 곧 형(形)으로 갈무리되기 때문이다. 혈지를 중심으로 주변 산수가 주밀하게 감싸주고 청수하면 혈을 결지하지만, 주변 산수

1) 김웅석, 「청와대의 풍수 입지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1쪽.

2)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24쪽.

가 깨지고 부서지고 지나치게 웅장하거나 결함이 많으면 혈을 결지하지 못한다.³⁾ 이는 지기(地氣)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깨진 곳을 말한다. 그로 말미암아 건강과 재물, 혹은 인간관계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용과 그 주변의 산수가 혈을 맺기에 부적합하여 살기(殺氣)가 발현되는 공간을 풍수에서는 흙지라고 한다.

대체로 길지는 산과 물이 혈을 감아 돌기 때문에 혈에 내재 된 기운이 청명하고 맑은 데 반해, 흙지는 물의 흐름이 거칠고 혈장으로 모이지 않아 혈안에 내재 된 생기가 밖으로 흩어지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물길은 혈처 주변을 환포(環抱)하지 않고 배반(背叛)하거나 사격이 불안정하고, 장풍(藏風)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거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다. 풍수란 그 목적이 생기(生氣)를 타는 것이다. 혈 주변을 조성하고 있는 풍수적 요소들이 혈의 생기를 보호하고 막아주지 못하면 이는 결국 흙지로 분류되고 마는 것이다. 다만, 길지가 아니면 모두 흙지라는 식의 단순 이분법적 논리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흙지라 하더라도 그 영향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으며, 비록 길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비보(裨補)를 통한 개선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흙지의 입지 환경

동양학의 근본이 되는 기(氣)의 실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풍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기라는 실체에 관하여 『주역(周易)』에서는 “올려다보아 천문을 관측하고 내려다보아 지리를 살피니 처음과 끝을 살펴 어둠과 밝음을 알기에 기가 응집하여 만물이 되고, 기가 흩어져 변화를 이루니 삶과 죽음의 도리를 알게 되며, 정기가 만물이 되고 유혼이 변화하니

3)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도서출판 평단, 2003, 363쪽.

귀신의 정상을 알게 된다.”⁴⁾고 하였다. 또한 “만물은 정기(精氣)로 인해 생겨나는데 천지는 이 정기를 감추고 있으므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는 우주의 기본 원소(元素)가 바로 기라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⁵⁾

풍수가 자연현상에서 비롯되었음은 풍수의 용어가 바람[風], 물[水], 땅[地], 그리고 이치[理]인 것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바람과 물과 땅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들의 작은 차이에 의해서도 인간이 영향을 받음은 오랜 체험을 통해 풍수 사상으로 구체화⁶⁾된 것이다. 최적의 입지 조건과 입지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풍수의 핵심은 바로 생기의 취득이다. 생기의 취득과 보전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바로 장풍과 득수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명당은 물 아끼기를 피 아끼듯 하고, 바람 피하기를 도적 피하듯 해야 한다.”⁷⁾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장풍과 득수를 이루지 못한 혈장이라면, 이는 결국 흉지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셈이다.

『지리인자수지』에서는 산과 물을 가리켜 “산은 사람의 인정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을 관장한다.”⁸⁾고 하였다. 그리고 『청오경』에서는 “생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맥은 물이 지나는 것을 막아 멈추게 한다.”⁹⁾고 하였으며, 『금낭경』에서는 “생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춘다.”¹⁰⁾고 하였다. 풍수에서 길지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장풍득수(藏風得水)를 논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정신과 재물을 동시에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보는 것과 같고”¹¹⁾, 자연은 자신이

4) 『周易』「繫辭上」, 第4章 “仰以觀於仰以觀於天文 俯以察於地理 是故 知幽明之故 原始反終 故 知死生之說 精氣爲物 游魂爲變 是故 知鬼神之情狀.”

5) 장태상, 『風水總論』, 한메소프트, 2011, 4쪽.

6) 지중학, 「風水地理 藏風局과 凹風地의 住居環境 特性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쪽.

7) 서선계·서선술, 김동규 역, 『人子須知』, 명문당, 1992, 861쪽.

8) “山管人丁 水管財物.”

9) “氣乘風散 脈過水止”.

10)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간직한 생긴 그대로의 모습을 세상에 투영¹²⁾하고 있어, 표리부동하지 않은 일관된 모습으로 인간사에 필요한 길흉과 화복의 고저(高低)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풍수에서 흙지는 인간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지형이나 환경을 의미한다. 즉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길지의 원론적 의미와 상반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곳이다. 다시 말해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순환 원인인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막힌 곳, 기가 모이지 않고 분산되거나 어느 한 지점에 고여 정체된 것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산이나 강 혹은 언덕이나 계곡과 같은 자연 지형이 만들어 내는 형상에 따라 길지와 흙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가령 산세가 지나치게 날카롭거나 절벽과 같은 급한 경사를 이루는 곳은 인간에게 불안정한 기운을 전달하는 흙지로 간주한다.

풍수는 음양오행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생·상극의 균형이 무너지거나 어긋난 곳 또한 흙지로 판단한다. 습지나 저지대를 비롯해 물이 고이는 장소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흙지는 자연 환경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인간에게 흉한 기운을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비보를 통해 보완하고,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지기(地氣)의 긍정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관심과 노력이 곧 풍수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가 되는 것이다.

(1) 흙지의 특징

흙지는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왜곡된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부정적 에너지가 흐르는 영역이나 해당 지역의 범위를 지칭하기도 한다. 흙지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조직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

11) 복웅천, 신평 역, 『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1997, 183쪽.

12) 지중학, 위의 논문. 14쪽.

의 삶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이를테면 흉지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은 그렇지 않은 주택에 비해 가족 간 갈등의 빈도가 증가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경제적 고립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물리적 환경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간이 주는 불편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과 초조함을 유발시켜, 그릇된 사고에 따른 도덕성 분리나 비도덕적 행위의 정당성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흉지에 관한 인식은 단순히 풍수가 지향하는 지리학적 개념을 넘어 삶의 여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공간의 개념은 곧 다양한 환경요인과 맞물리며 공존과 구현의 방식으로 자연에 표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흉지에 대한 적절한 경계와 경각심은 정성(定性)의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자 실천 응답으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정주학의 창시자이자 북송 시대의 유학자인 정이천(程伊川, 1033~1107)은 택지나 묘지를 정할 때 먼저 오환지(五患地)를 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예기(禮記)』의 ‘장야자장지(葬也者藏也)’¹³⁾라는 말을 인용해 장례는 감추는 것이고, 한 번 감추어 장사 지내고 난 후에는 다시 개장하지 않으니, 자손들은 장지의 선정을 신중히 해야 허물이 없다.¹⁴⁾며 「장법결의(葬法決疑)」를 통해 전하고 있다. 그리고 「장설(葬說)」에서는 신령님의 안위와 평안함을 위해 장지 선정에 우려해야 할 다섯 가지 근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오직 다섯 가지 ‘오환(五患)’을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후일에 도로, 성곽, 도랑이 되거나, 세력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농경지로 개간되는 곳은 피해야 한다.”¹⁵⁾ 또한 주자(朱子, 1130~1200)의

13) 『禮記』, 「檀弓」 “葬也者藏也 藏也者 欲人之弗得見也.”

14) 『二程集』, 「葬法決疑」 “夫葬者藏也 一藏之後 不可復改 必求其永安 故孝子慈孫 尤所慎重.”

15) 『二程集』, 「葬說」 “惟五患者不得不慎 須使異日不爲道路 不爲城郭 不爲溝池 不爲貴勢所奪 不爲耕犁所及.”

「사기혈론(四忌穴論)」과 곽박(郭璞, 276~324)의 「오불가장지(不可葬地)」, 양균송(楊筠松, 834~900)의 「불가장법(不可葬法)」에서도 각각 흉지에 대한 경계와 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침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2) 흉격의 명당

『명산론』에서는 명당을 논할 때 길한 형상 10개와 흉한 형상 20개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그중 흉한 형상으로 “직선이거나 굽었거나 비었거나 들판 같거나 흠어졌거나 치우쳤거나 깨어졌거나 부딪혔거나 엮혀있거나 축박하거나 협소하거나 울거나 새거나 겁박하거나 병든 듯하거나 되돌려졌거나 감옥 같거나 기괴하거나 어지럽거나 하면 천하다.”¹⁶⁾고 하였다.

〈표 1〉 흉격의 명당 9종류(출처:『풍수역사이론비평』)

흉격 의 명당					
	겁살명당	반배명당	질색명당	경도명당	핍착명당
					
	편측명당	파쇄명당	도사명당	광야명당	

『지리인자수지』에서도 9종의 길격과 9종의 흉격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인자수지』에서 언급한 흉지의 종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종으로 겁살명당·반배명당·질색명당·경도명당·핍착명당·편측명당·파쇄명당·도사명당·광야명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蔡成禹, 김두규 역,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121~122쪽.

(3) 흉지의 사격

흉지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분포하고 있다. 먼저 이와 관련한 형상을 살펴보면 대체로 산이 거칠거나 조악(粗惡)한 곳을 꼽을 수 있다. 조악이란 산세가 거칠고, 웅대하고, 추악하고, 흉한 암석이 많고, 산봉우리가 너무 커서 우악스러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말한다.¹⁷⁾ 무릇 첫인상은 소통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선입견이 생기게 마련이며, 관계를 지속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적잖은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연현상이 인간 삶의 영역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산의 외부 형상이 부드럽거나 유(柔)하지 않으면, 명당(明當)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경사가 급한 곳은 생기가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혈을 결지하지 못한다. 게다가 주변에 혈을 보호하는 산조차 없다면 단한(單寒)한 곳이 되어 그 흥은 배가된다. 이 외에도 허모(虛耗)한 지형과 요결(凹缺)한 지형, 수삭(瘦削)한 지형, 돌로(突露)한 지형, 파면(破面)한 지형, 흘두(疙頭)한 지형, 산만(散漫)한 지형, 유랭(幽冷)한 지형, 첨세(尖細)한 지형, 탕연(蕩軟)한 지형, 완경(頑硬)한 지형, 참암(巉巖)한 지형은 모두 흉지로 간주한다.

〈표 2〉 흉격의 사격 10종류(출처:『감여만흥(堪輿漫興)』)

흉격 의 사격					
	흉호상투	흉호상쟁	흉호상사	흉호비주	흉호퇴거
					
	흉호절비	흉호반배	흉호단축	흉호순수	흉호교로

17) 정경연, 앞의 책, 363쪽.

이 외에도 풍수와 관련된 여러 문헌에는 집터와 묘지를 쓰면 안 되는 곳을 비롯해 터를 정할 때 경계해야 할 혈지의 다양한 형상과 그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흉지는 오래전부터 음·양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 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 선현들의 보편화된 인식 속에서 풍수 문화가 그들의 삶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흉지에 집터를 정하거나 장지를 선택하는 경우, 땅의 흉한 기운은 그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절손(絶孫)과 같은 극단적 불행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 재물의 손실 및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흉지는 산자(生者)와 망자(亡者) 모두에게 흉한 기운과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삶에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과 효율적인 의사 결정의 역량마저 저해 받을 수 있는 곳임을 인지하고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흉지란 기의 흐름이 차단되거나 분산되어 생기를 수렴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 결함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바탕을 둔 풍수의 궁극적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흉지는 산세와 수세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기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왜곡된 곳으로, 명당 구성의 요체인 혈(穴)을 맺을 수 없는 곳이다. 특히 장풍득수라는 풍수의 기본 명제를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곳이기도 하다. 외형적으로는 침예하고 거친 산세와 협소하고 단절된 지형으로 표상되며, 생태적 불안정성과 인문 지리학적 부조화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곳이다. 풍수 고전에서는 ‘오환지(五患地)’나 ‘불가장지’, 혹은 ‘불장론’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있다. 따라서 흉지는 음양택지(陰陽宅地)로서 부적합한 입지일 뿐만 아니라, 인간 삶의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흉지라는 개념이 늘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만은 않다.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풍수적 조정(裨補) 등의 수단을 통해 일정 부분 그 해악을 상쇄하거나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흙지는 단순히 ‘나쁜 땅’이라는 지리학적 운명론을 넘어 인간과 자연, 공간 사이의 복합 관계를 성찰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흙지와 물의 연관성

1. 물의 개념

물은 만물을 길러내는 원초적이며 보편화된 물질이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재적 사물이자 느낄 수 없어도 그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정서뿐만 아니라 생활·환경·학문·예술, 그리고 철학과 같은 형이상학적 관념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삶과 문화적 공간을 동시에 아우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밀레토스 탈레스(Miletus Thales, BC 625~BC 547)는 “물은 우주의 근본 물질이며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성되었고, 마침내는 모든 것이 그것으로 돌아간다.”¹⁸⁾고 하였다. 물에서 생명이 탄생했고, 생명의 유지도 물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이라는 등가 원칙이 성립되었다. 물은 생명력과 정화력을 가지며 여성의 생산력과도 연결되는데, 여성적 생명 원리를 가짐으로써, 임신과 출산의 힘을 갖는다. 그리고 낮은 데로 흐르는 모습에서 겸양(謙讓)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존재로 인식하였다.”¹⁹⁾

한편 물에 관한 동양의 인식은 『관자(管子)』에서 엿볼 수 있다. “물은

18) K·S데이비스 & J·S데이, 소현수 역, 『물』, 현대과학신서, 1976, 15쪽.

19) 박정혜, 「풍수논리 속의 물(水)」, 『민족문화논총』 60, 2015, 94쪽.

땅의 혈기이다. 마치 맥박이 통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물은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다. 어찌 그러한가? 무릇 물은 부드럽고 맑아서 사람의 악함을 깨끗하게 해주니 어질다. 보기에는 검지만, 희고 깨끗하니 수수하다. 헤아리지 않아도 가득 차면 그치니 바르다. 어느 곳이나 흐르지 않는 곳이 없고 평평하면 멈추니 의롭다. 사람은 모두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홀로 낮은 곳에 거하니 겸손하다. 겸손은 도가 머무는 집이요, 왕이 사용하는 그릇이니, 모든 곳이 모이는 곳이다.”²⁰⁾

이처럼 물은 “정해진 모양이 따로 없다. 둥글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며 낮은 곳을 향해 흘러내리거나 떨어지는 다양한 조형적(造形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이러한 물의 무형성(無形性)은 실체를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반면에 그 무형의 신비함으로 무한한 상상력을 이끌어주기도 한다.”²¹⁾ 또한 “물은 다양성, 융통성,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다른 물질과 달리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줄 아는 융통성도 있다.”²²⁾ 모든 만물을 씻어 주고 정화해 주는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포용성과 인내를 상징하기도 한다. “물은 운명의 한 타입(type)이며, 유동하는 이미지의 공허한 운명, 미완성 된 꿈의 공허한 운명이 아닌 존재의 실체를 끊임없이 변모시키는 근원적 운명이다. 물의 하잘것없는 물리적 특성이 종종 하나의 본질적인 심리적 상징이 될 수 있다.”²³⁾ 물의 본질적 모습과 원리적 실체 속에 담긴 다양한 철학적 사유는 인간을 자연에 귀속시키는 데 기인하는 일종의 사상적 매개체로서 물이

20) 管仲, 『管子』, 「第14卷」 水地 “水者地之血氣 如筋脈之通流者也 故曰水具材野 何以知其然也 曰夫水淖弱以清而 好灑人之惡仁也 視之黑而白精也 量之不可使概至滿而止正也 唯無不流至平而止義也 人皆赴高已獨赴下卑也者道之室 王者之器也 而水以爲都居。”

21) 임수현, 「물의 이미지를 통한 심상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쪽.

22) 홍수희, 「물의 유동성의 표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7쪽.

23) 정영진, 「물의 상징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쪽.

갖는 독특한 상징성을 의미하고 있다.

2. 물의 풍수적 특징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 뇌와 심장, 폐, 간, 근육, 혈액, 뼈에도 각각 일정한 비율의 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몸은 5%의 수분만 잃어도 혼수상태에 빠지고,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물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용해된 영양소를 각 세포에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물은 만물의 근원이며 만물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물질이자 요소이다.

풍수는 산과 물의 논리다. 풍수에서 물은 혈의 결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 된다. 『청오경』에서 물의 중요성을 제시한 이후 『금낭경』의 『기감편』에서는 풍수의 법은 득수가 먼저라고 하였다.²⁴⁾ 물의 중요성은 『지리인자수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물은 하늘에서 생기는 것이니 물은 실로 만물의 조종(朝宗)이요, 천지간에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리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용은 물이 내보내지 않으면 오는 바를 밝힐 수가 없고, 혈은 물의 경계가 아니면 그침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대계 외기(外氣)는 횡(橫)으로 형성되는 것이고, 내기(內氣)는 정지하여야 용혈이 생기는 것이니 용혈은 물에 힘입어 생기는 것이다.”²⁵⁾

고정불변의 산은 정(停)하여 음으로 판단하고, 물은 동(動)하여 양으로 판단한다. 물 없이 혈 맺음도 없다는 풍수적 논리는 풍수가 추구하는 핵심 진리이자 궁극적 가치이다. 풍수에서 물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물은 혈처의 생기를 흠어지지 않게 하고, 동시에 용맥을 보호하며 인도한다. “기라는 것은 물의 어미이고, 기가 있다는 것은 곧 물이 있는 것”²⁶⁾이라고 하였다. 즉, 기는 물의 근본이기에 기가 있는 곳에 물이 있다고

24) 박정해著, 『풍수역사이론비평』, 민속원, 2018, 30쪽.

25) 서선계·서선술, 김동규 역, 『인자수지』, 「水法」, 명문당, 2008, 467~468쪽.

하여 풍수에서는 기와 물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풍수에서는 ‘산관인정(山管人丁) 수관재물(水管財物)’이라고 하여 산은 인물을 관장하고, 물은 재물로 본다. 그리고 물 넓은 만큼 사람이 모이고, 물 깊은 만큼 부자가 난다고 하였다. 물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독특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모이면 재화가 쌓이고, 재화가 쌓이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인지상정의 당연한 이치이다. 반면 물이 흩어지는 곳이나 메마른 지역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재화가 쌓이지 않고, 재화가 쌓이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이다.

물에 관한 논리는 『택리지(擇里志)』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며, 물과 짝한 다음에라야 바야흐로 생성하는 묘(妙)함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흘러가고 오는 것이 지리에 합당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정기를 모아 기르게 된다.”²⁷⁾라며 물의 중요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물에는 지표면 위의 지상수가 있고, 지표면 아래의 지하수가 있다. 지상에 흐르는 물은 용맥을 호종(護從)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지하수는 용맥의 생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생기는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므로 이를 물이 가두어 보호²⁸⁾해야 하는 것이다.

26) 郭璞, 『錦囊經』, 「氣感編」 “氣者水之母 有氣斯有水.”

27)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凡無水之也 自不可居 山必得本配水 然後方盡生化之妙 然水必來去合理 然後方成鍾 毓之吉.”

28) 정경연著, 앞의 책, 543쪽.

3. 물의 형상과 종류

물의 흐름은 용맥의 흐름처럼 형상과 종류가 다양하다. 풍수에서는 산과 물을 각각 음과 양으로 구분하는데,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는 음양교배(陰陽交配)를 이루면 비로소 혈을 맺게 된다. 음양교배의 여부는 풍수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 다시 말해 물이 산을 등지고 달아난다면 음양교배를 이룰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길지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혈의 길흉은 바로 물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순간을 통해 지속적인 생명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주변 환경 요인과 수많은 관계를 형성한다. 풍수는 환경요인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관계를 하나의 논리 속에 객관화하는 방법으로 형세 풍수를 활용하였다.

〈표 3〉 『지리오결』과 『지리인자수지』의 오성수 비교

구분 종류	『지리오결』	『지리인자수지』	비고
목성수	곧고 길게 흐른다.	수가 땅을 뚫고 옆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直線
화성수	인성이 오만하고 강폭하다.	화성 수성은 침사파쇄한 것이니 극흉하다.	極凶
토성수	단정하면 인정과 부귀를 겸한다.	형평하나 방한 것이니 반길이다.	半吉
금성수	금성형의 수로서 가장 길하다.	만곡포신이니 극길한 것이다.	極吉
수성수	돈이 남아돌고 의식이 넉넉해진다.	현자로 굴곡하는 것이니 길하다.	最吉

또한 환포와 반배라는 음양론에 바탕을 둔 이분법적 길흉론을 제시하였으며, 이로써 오행을 통한 물길의 형상을 정립하였다. <표 3>은 『지리인자수지』와 『지리오결』²⁹⁾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길의 형상과 그 특징을 각각 구분한 것이다. 이중 목성수는 혈 앞으로 흐르는 물의 형태가 일직선으로 흐르는

물이며, 화성수는 혈 앞의 물길이 뾰족한 형태로 흐르는 물이다. 토성수는 혈 앞에서 사각의 형태로 흐르는 물이고, 금성수는 둥그런 형태로 혈처를 환포하며 흐르는 물이다. 마지막으로 수성수는 혈 앞을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물로, 오성수 가운데 가장 길한 물길이다.

〈표 4〉 물 형상의 오행 분류(출처:『지리답자록(地理啖蔗錄)』)

물길 의 형상					
	목성수	화성수	토성수	금성수	수성수

물길의 형상이 오행 분류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환포와 반배 때문이다. 『청오경』에서는 모래 물결처럼 겹겹이 감싸안을 것을 주문³⁰⁾하였다면, “『수룡경(水龍經)』에서는 물이 완연하게 감싸안은 곳에 혈을 맺는다는 논리를 제시”³¹⁾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강한 생명력과 정화력을 갖춘 물이 풍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손꼽히는 것이다. 풍수 고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생기는 물의 어머니로서, 생기가 있으면 물이 있는 것”³²⁾이라는 내용과 “물이란 땅의 혈기로 사람에게 혈맥과 같다.”³³⁾는 내용은 모두 정통성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형세 풍수의 기본이론이다. 한편 혈을 환포하는 물, 혈 앞에서 득수되는 물이 파구(破口)되는 물보다 크고 길게 들어오는 물, 또는 혈 앞에서 합수(合水)되는 물이나 혈을 빠져나가는 물이 여러 곳이 아닌 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물 등은 대체로 길격(吉格)에 해당한다. 반면 탁하고 악취가 나는 물이나 직선으로 득수가 되거나 파구되는 물, 여러 방향

29) 박정해, 앞의 책, 37~38쪽.

30) 최창조,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23~24쪽.

31) 蔣平志, 『水龍經』, 海南出版社, 2003, 53쪽.

32) 郭璞, 『錦囊經』, 「氣感編」 “氣者水之母 有氣斯有水.”

33) 管仲, 『管子』, 김필수의 3인 역, 소나무, 2009, 534쪽.

으로 빠져나가는 물, 폭포수처럼 물 떨어지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물 등은 모두 흉격(凶格)에 해당한다.

풍수는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 풍수에서 물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생명력의 징표로 땅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말해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풍수에서는 땅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生氣)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는데, 그 기운의 근간이 바로 물을 얻은 곳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풍수에서 생명의 조건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³⁴⁾에 놓여 있는 것이다.

Ⅳ. 흥지 사례 분석

1. 주산이 녹존성인 복합 리조트

흥지의 첫 사례는 L-시(市)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 건물이다. 이곳은 대지 5만 3천 평 위에 연건평 3만 평 크기의 복합 놀이 시설로 물놀이장과 콘도를 비롯한 100여 개의 호텔 객실, 그리고 대규모 찜질방 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관내의 대표 리조트이다. 본래 당 부지는 A사의 공장 터였다. 그러나 잇단 수재와 화



〈그림 1〉 복합 리조트 입지 환경
(출처 : 구글어스 & 저자 작도)

34) 최원석,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 한길사, 2018, 304쪽.

재, 부도를 일시에 겪는 등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왔다. 이후 P-건설에서 시공하여 2010년 종합 리조트로 개장 예정이었으나, P-건설 또한 경영 위기에 몰리면서 백지화되고 말았다. 그 뒤 외국계 B사가 인수하여 2018년 개장 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장기 휴업에 들어갔다. 2024년 6월 다시 부분적으로 개장하려 하였으나, 시설 점검 및 보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듬 해인 2025년 6월 최종 개장 절차를 앞두고 있다.

주산의 형상은 녹존성으로, 본 건물은 우백호 바깥 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지기가 바람으로부터 흠어지는 것을 막고 혈처의 생기를 보호하는 보국(保局)이 조성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감룡경』에서는 “무릇 산들이 깨지거나 부서지는 것을 꺼리는데 주위의 산들이 감싸주지 않으면 대부분 흉하게 된다.”³⁵⁾고 밝히고 있다. 즉 풍수에서는 생기의 집결과 안정된 지세를 무엇보다 중시하는데, 이러한 보국의 부재는 생기의 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길지 조건에 크게 벗어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곳은 혈처를 중심에 두고 여러 갈래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이다. 이는 도로에 의해 건물이 가위질당하는 것과 같은 흉상으로, 풍수적으로는 매우 불길한 형상에 해당한다.

건물 앞으로 흐르는 하천은 본 건물을 환포하지 않는 목성수(木星水)이며, 반궁수(反弓水) 형태인 직거수(直去水)로 흘러 나간다. 『지리오결』에서는 이러한 반궁수에 관해 “객지로 떠나고, 음란하고, 군병으로 멀리 가고, 도적이 생기고 하는 것이 명당을 외면하여 오는 물 때문이다. 수법의 유래가 이런 곳을 가장 꺼린다. 반도수가 되면 문맹자(文盲者)와 무전자(無錢者)가 나오리라.”³⁶⁾는 말로 역설하고 있다. 현대 풍수에서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물길로 인식하는데, 이 지역의 도로는 건물 전면에서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형상으로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한 형세를 취하고

35) 양군송, 김두규 역, 『감룡경·의룡경』, 『第五編』, 비봉출판사, 2009, 68~69쪽.

36) 조정동, 신평 역, 『지리오결(地理五訣)』 동학사, 1993, 248쪽.

있다.

혈장을 중심으로 길게 뻗은 직선형의 도로는 마치 창을 든 적군이 나의 심장을 향해 달려 오는 형상이 되어 흉하다고 평가한다. 이를 두고 『청오경』에서는 “산이 달아나고 물이 곧바로 나가면 타인에게 의식(衣食)을 의탁한다.”³⁷⁾고 하였고, “산옥(山獄)이거나 물이 급히 빠져나가면 왕은 붙잡히고 제후는 멸망하게 된다”³⁸⁾며, 이 같은 지세의 흉함을 역설하고 있다. 『설심부』에서도 혈 앞의 반도수(反跳水)로 빠져나가는 물에 관해 “수가 작아도 반도수(굽어지다 도망가는 물)가 혈을 지나면 하나의 문장도 이룰 수가 없고, 수가 둥글게 반포(반궁)해 들어오면 즉시 쇠하게 되니라.”³⁹⁾라고 전하고 있다. 풍수 고전의 내용을 근거로 현재 리조트가 입지하고 있는 입지 환경의 지형지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리조트의 주산은 녹존성이다. 녹존성의 산신(山身)에는 수많은 지각이 뻗어지므로 중심 맥을 구분하기 쉽지 않으며, 이는 토성(土星)으로서 금성형(金星形)의 봉우리에 수성(水星)의 지각을 하고 있다. 녹존성은 대체로 인간이 복을 받는 만큼 화(禍)도 함께 받는 별[星]로 전해지고 있다. 녹존성은 와혈(窩穴)이나 돌혈(突穴), 소치혈(梳齒穴)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리조트 건물은 혈처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니, 이마저도 길지를 논하기에 부적절하다.

둘째, 본 혈장의 사격은 흉격 중 하나인 용호절비(龍虎折臂) 즉, 좌청룡의 중간 부분이 크게 요함(凹陷) 하여 골바람을 맞고 있다. 이는 자손의 안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본 리조트 건물은 혈처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니, 이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리조트 건물이 혈처와 떨어진 우백호 바깥 자락에 자리함으

37) 郭璞, 오세종 역, 『해설 청오경』, 삼필문화사, 2007, 34쪽.

38) 郭璞, 오세종 역, 위의 책, 35쪽.

39) 복웅천, 『雪心賦』, 「第5章」 “水纔過穴而反跳 一文不值 水若入懷而反抱 一發便衰.”

로써 주변 사격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니, 풍수적으로는 더욱 흉한 형국이 조성되고 말았다.

셋째, 리조트 건물 앞으로 흐르는 하천은 본 건물을 환포하지 않는 목성수이며, 반궁수(反弓水) 형태인 직거수(直去水)로 흘러 나간다. 특히 『지리인자수지』에서 “목성수는 무정하게 흘러가는 물로 크게 흉하다. 삼격(三格)이 있는데 직목(直木)·횡목(橫木)·사목(斜木)이다. 직목은 곧바로 찌르듯이 들어와 쏘는 것으로 흉하다. 횡목은 물이 혈을 뚫고 옆으로 급하게 지나가니 혈을 원하는 것이 없으므로 흉하다. 사목은 물이 오고 가는 것이 무정하므로 흉하다.”⁴⁰⁾고 하였고, 『설심부』에서는 “만약 목형의 수성으로 가슴을 곧게 치고 들어오면 명당의 기운이 흩어지게 되어 반드시 집안이 파괴되고 가산이 탕진되는 흉함이 있게 된다.”⁴¹⁾고 하였다. 또한 『지학(地學)』에서는 “목성은 귀하나 빈궁하며 가난을 면하기 어렵다.”⁴²⁾고 하며 목성수의 흉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풍수 고전에서는 목성수와 반궁수, 직거수 모두 혈처와 무정하며, 재물이 빠져나가는 흉한 물길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현대 풍수에서 도로는 물길로 간주하여 혈처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도로는 건물 전면에서 도로가 직선으로 뻗어 나가는 형상으로 재물의 기운이 밖으로 흘러버리는 불리한 형국을 취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았을 때, L-시(市)에 위치한 복합 리조트는 길지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형적인 흥지 사례로 평가된다. 주산과 보국이 형성되지 않아 생기를 보호하지 못하고, 전면 도로와 하천이 모두 반궁수와 직거수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지형은 생기의 유입을

40) 서선계·서선술, 『人子須知』, 「水城論」 “木星水城 直峻無情大凶 有三格曰直木曰橫木曰斜木 直木直沖心射面不可以其爲特朝也主凶 橫木城一水穿堂而過既直且急 全無顧穴之情主凶 斜木水城來去皆無情也主凶.”

41) 복응천, 신평 역, 앞의 책, 관음출판사, 2001, 99쪽.

42) 沈鎬, 허찬구 역, 『地學』, 육일문화사, 2001, 383쪽.

막거나 흩어지게 만들어 인적·물적 자원의 손실과 같은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감룡경』과 『지리오결』을 비롯해 여러 풍수 고전에서 지적하고 있는 흉지의 폐해에 관한 서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본 사례는 현대 도시 공간 구성과 해석 방식에 있어 풍수 논리가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예시로서, 향후 입지 선정과 공간 기획 과정에서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관공서 건물

국가 발전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성과 지표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수도, 국가 원수의 집무실, 그리고 행정 조직이 들어서 있는 국가 기반 시설의 입지 환경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풍수적 요소를 근거로 흉지에 자리하고 있는 관공서 건물에 관한 입지 환경 분석이다.

해당 건축물이 현 자리로 이전하기까지 J-시청은 그동안 대규모 국제 박람회 유치 및 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인구 10배를 넘어서는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거둬왔다. J-시청은 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시설 협소 문제와 주변 신도시 개발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지금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사 이전 이후 2024년 생활임금 수준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J-시청의 채무는 1조 원을 넘어섰으며, 해당 지역 주민 1인당 69만 5천 원이라는 지방 채무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는 전년도인 2021년도 보다 약 1,567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현 정부의 R&D 예산 삭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⁴³⁾ 본 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입지 환경을 풍수적

43) 「J-광역시 채무, 1조원 돌파」, 『대전 소리통』, 2023. 09. 27.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J-광역시의 연도별 부채 상황(출처:『대전소식통』)

구분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채무액	5,961억 원	5,951억 원	8,005억 원	8,476억 원	1조 43억 원

첫째, 배산임수(背山臨水)의 명당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배산임수는 풍수의 원론적인 이데올로기이자 기본적인 사상체계이다.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은 『산림경제(山林經濟)』에서 “치생(治生)을 함에 먼저 지리를 가려야 한다. 지리는 물과 땅이 아울러 통하는 곳을 좌우선으로 삼는다. 고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곧 훌륭한 곳이 된다.”⁴⁴⁾고 하였다. 또한 정조(正祖)는 『홍재전서(弘齋全書)』를 통해 “옛말에 일백 가구의 마을과 열 집의 저자라도 반드시 산을 의지하고 시내를 끼고 있어야 한다”⁴⁵⁾며 배산임수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재 J-시청이 입지하고 있는 곳은 배산임수 지형이 아닌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임수배수(臨水背水)의 지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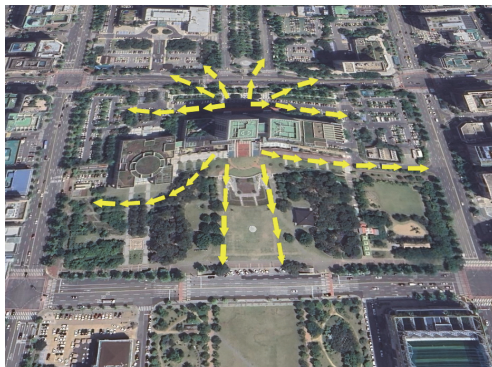
둘째, 건물의 입지가 정자(井字) 모양의 격자 형태로 조성되었다. J-시청 주변에는 장풍을 위한 사신사(四神砂)가 갖추져 있지 않다. 그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방으로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을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음택풍수의 경우 사신사의 결함이 있을 때, 용맥 배양과 보호를 위한 식재(植栽)나 보토(補土), 조산 등의 비보 행위가

44) 洪萬選著, 『山林經濟』, 「卜居」 “治生必須先擇地理 地理以水陸並通處爲最 故背山面湖乃爲勝也 然亦須寬大 又要緊束 蓋寬大 則財利可出 緊束 則財利可聚也.”

45) 正祖著, 『弘齋全書』, 「卷三」 十六 “古語不云乎 百家之聚 十室之市 亦必依山帶溪者是也.”

있다. 반면 양택풍수에서 사신사의 결합은 곧 각 방위에 나무를 심는 행위로 귀결된다. 따라서 음택풍수에 비해 양택풍수의 사신사 비보 행위는 상대적으로 단순⁴⁶⁾한 편이다. 그러나

『산림경제』에서는 “사신사의 등마루 위에 십자(十字) 형태의 길이나 명



〈그림 2〉 정자(井字) 모양의 도로와 물길
(출처 : 구글어스 & 저자 작도)

당의 가운데 정자(井字) 모양의 길은 모두 꺼린다. 2개는 가로로 나고 하나는 곧게 난 길을 이름하여 강시(扛屍)라고 하는데 흉하다. 4개의 길이 집을 감싸고 있으면 흉한데 그 증험이 가장 잘 나타난다.”⁴⁷⁾고 하였다. 또한 『양택집성(陽宅集成)』에서는 “무릇 집의 사면에 도로가 둘러싸고 있어 수(囚)자 모양이면, 사람은 재물이 왕성하지 않고 심하면 패절한다.”⁴⁸⁾고 하였다. 즉, 도로 사면에 명당이 조성되는 경우 이는 마치 사람이 갇힌 모양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본 것이다.

셋째, 파구가 일정치 않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을 상징한다. 그러나 J-시청의 주변 물길은 수구가 일정치 못하고 혈처의 전·후·좌·우로 물이 흘러지는 전형적인 흉격의 물길이다. 풍수의 원리가 바람을 간직하고 물을 얻는 것인 만큼 양택풍수에서도 산과 물의 조화가 중요시되고 있다.⁴⁹⁾ 이를 두고

46) 천인호, 「양택풍수의 택지론과 현대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77, 2020, 449~450쪽.

47) 洪萬選, 위의 책 “四獸脊上 有十字樣路 明堂中心 有井字樣路皆忌 兩橫一直 名曰扛屍凶 四路圍宅凶 其驗最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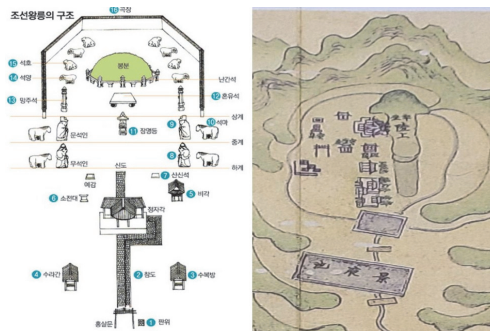
48) 姚廷鑾, 『陽宅集成』, 「屋形法」 “凡屋四面 有通繞路 爲囚字形 主人財不旺 甚則敗絕.”

『양택십서(陽宅十書)』에서는 “수구는 긴밀하게 수습되어야 하는데 너무 좁아 작은 그릇처럼 된 것도 마땅하지 않다.”⁵⁰⁾라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J-시청이 자리하고 있는 입지를 종합 분석해보면 배산임수 및 사신사, 도로와 물길 등 여러 풍수적 요소에서 길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홍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곳에 일반 기업이나 택지가 아닌 공공 기관이 들어선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공간의 활용 목적이 재물 축적이나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행정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과 목적, 특수성을 모두 차치하더라도, 입지 선정에 앞서 해당 부지의 입지 조건과 환경적 유불리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3. 장릉(莊陵)

다음 사례는 음택지(陰宅地)로서 강원도 영월에 자리하고 있는 단종(端宗, 1441~1457)의 장릉이다. 이곳 장릉은 많은 풍수가들 사이에서 ‘삼대내절향화(三代內絶香火)’의 과룡처로 알려져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왕릉의 입지는 도성의 10리 밖에서 100리 이내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릉은 『경국



〈그림 3〉 장릉의 공간 구조
(출처 : section.blog.naver.com)

49) 천인호, 위의 논문, 460쪽.

50) 王君榮, 『陽宅十書』 “更須水口收拾緊 不宜太迫成小器.”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조선의 유일한 왕릉이다. 장릉은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에서 불과 2km 남짓 떨어진 곳에 조성돼 있으며, 도성과 가장 멀리 떨어진 왕릉으로 기록되어 있다.

단종은 계유정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에 유배된다. 이후 17세 되던 해 수양대군(首陽大君, 1417~1468)의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의 시신은 수습되지 않은 채 동강에 그대로 버려지게 되는데, 당시 영월의 하급 관리였던 엄흥도(嚴興道, ?~?)라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지금의 장릉에 묻히게 되었다. 이곳은 현재까지 길·흥지의 진실을 두고 다양한 공방과 설전이 벌어지는 곳이다.

장릉을 길지라고 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있다. 장릉의 능침은 용맥(龍脈)이 지나가는 과협처(過峽處)가 맞지만, 혈을 맺고 재차 행룡(行龍)을 이어가는 기혈(奇穴) 중의 하나인 기룡혈(驕龍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기룡혈을 볼 때는 신중히 점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칫 과룡처(過龍處)를 기룡혈로 잘못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룡혈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혈이 형성된 이후에도 용이 지속적으로 행룡하여 용진처(龍盡處)에 이르고, 그곳에서 용머리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려 행룡을 멈춰야 한다. 그러나 장릉의 혈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용맥이 능침을 지나 일직선으로 뻗어 내려갈 뿐 기룡혈을 맺기 위한 흔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장릉의 맥은 오대산으로부터 흘러 내려온 산맥이다. 이 맥은 중왕산·청옥산·접산·시루산을 거쳐 내려오긴 하였으나, 용진처는 현재 능침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아닌 용맥의 끝자락이다. 이를 두고 『금낭경』에서는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기가 물에 닿으면 머문다.”⁵¹⁾고 하였다. 결국 장릉은 기룡혈이 아닌 과룡처이며, 못자리 역시 혈장의 요건(입수도두, 선익, 순전, 혈토)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혈장의 생기를 보호해야 할 좌청룡은 혈처를

51) 郭璞, 『錦囊經』, 「氣感編」 “氣乘風則散 界水則止.”

배반하며 좌측으로 길게 뻗어있고, 우백호는 좌청룡에 비해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다.

한편 장릉을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왕릉의 경우 금천과 금천교(禁川橋)를 지나면 홍살문[紅箭門]이 있다. 그리고 판위(版位)와 향어로(香御路)를 지나면 배위청(拜位廳)이라 불리는 정자각을 만난다. 정자각 우측에 수부방(守僕房)과 비각(碑閣)이 있고 좌측으로는 수라간이 자리하는데, 정자각에서 능침을 바라보며 제례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절차다. 그러나 장릉의 구조는 이와 사뭇 다르다. 홍살문이 왕릉의 측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능상은 다른 왕릉과 다르게 매우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향어로는 ‘일(一)’자 형태가 아닌 ‘ㄱ’자 형태로 꺾여 있다. 이마저도 능침의 정면이 아닌 측면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장릉이 다른 왕릉의 입지와 다르게 조성된 이유는 숙종 24년 노산대군(魯山大君)에서 단종으로 추존되고, 묘에서 능으로 격상되면서 왕릉을 인위적으로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장릉의 입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릉의 맥은 오대산으로부터 갈라져 내려온 산맥이다. 이 산맥은 각각 중왕산·청옥산·접산·시루산을 거치며 강한 용맥의 기운이 혈처를 향해 뻗어 내려오고는 있지만, 장릉에는 생기를 응축하는 입수도두(入首倒頭)뿐만 아니라 생기의 누출을 막는 전순(氈脣)과 선익(蟬翼)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격은 용호순



〈그림 4〉 장릉의 용맥 흐름도
(출처 : 구글어스 & 저자 작도)

수(龍虎順水)이다. 이를 퇴전필사(退田筆砂)라고도 하는데,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청룡과 우백호가 한쪽으로 치우쳐 평행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뜻한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요도지각(橈棹支脚) 지점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청룡·백호의 끝이 날카롭게 생겼으며 혈을 감싸주지 못하고 비주(飛走)한다. 산이 달아나니 물도 혈을 감싸주지 않고 달아나는 형국이다. 전답을 팔아 없애는 형세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한 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며,⁵²⁾ 형제가 서로 다투며 재물이 흩어지고 가난을 면키 어렵다고 전해진다. 이는 장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무게가 실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장릉은 조선의 왕릉 중 망주석에 세호(細虎)가 없는 유일한 능이다. 이는 조선 왕실이 단종을 위엄있는 왕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왕실의 예법으로 장릉을 조성했다고는 하나 동쪽의 제향 공간으로 오르는 향로계(香路階)에는 구름 문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느 왕릉의 향로계에 비해 상당히 초라하다. 또한 병풍석과 난간석을 제외하고라도 벽사(辟邪)의 상징이자 샅된 기운으로부터 정자각을 보호한다는 잡상(雜像) 역시 장릉의 정자각에는 없다. 잡상은 민가나 사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왕실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풍수적 차원의 결함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왕릉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위계를 지닌 왕의 능침이었음에도, 당시 광릉



〈그림 5〉 장릉의 정자각
(출처 : section.blog.naver.com)

52) 정경연著, 앞의 책, 502쪽.

(光陵)에 준하는 격식을 갖추는 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대의 정치적 제약이 입지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홍지가 갖는 의미를 자연과 생명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객관적 분석이 가능한 지역을 유형화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홍지의 기본 개념과 입지 환경 및 물과의 연관성을 통해 홍지가 어떠한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구조적 특성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범위는 시대와 공간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여 풍수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방식의 스펙트럼을 보다 유연하게 확장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대 사회의 감성과 정서를 담아낼 수 있는 풍수의 논리적 가능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검증 차원에서다.

홍지는 흥한 기운을 가진 땅, 즉 사람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주로 지형적·환경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를테면 조산이나 주변 사격에 결함이 있어 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거나 순환이 막힌 곳이다. 또한 혈처의 생기가 외부로 흩어지는 지형·형세를 갖추고 있으며, 물길은 혈처를 환포하지 않고 배반하며 흐르는 곳이다. 풍수란 그 목적이 생기를 타는 것으로, 혈 주변을 조성하고 있는 풍수적 요소들이 혈의 생기를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 해당 지역은 길지가 아닌 흉지로 분류된다. 본 연구는 음양택 풍수서에 담긴 다양한 풍수 이론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홍지의 입지적 특성과 그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진처에 작혈(作穴)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 홍지로 간주한다. 혈처의 생기(生氣)는 주산의 역량과 비례한다. 따라서 주산의 기운을 제대로 수용하

고 있는지가 길흉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그러나 흉지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복합 리조트 건물과 J-시청 건물, 그리고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장릉은 모두 주산의 기운을 받지 못했거나 주산의 기운이 분산된 곳이다. 다시 말해 장풍득수를 이루지 못한 지역이나 과룡처에 입지한 경우였다. 다만, 길지가 아니면 모두 흉지라는 식의 단순 이분법적 논리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흉지라 하더라도 그 영향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으며, 비록 길지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 할지라도 비보(裨補)를 통한 개선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용호의 면배(面背) 여부이다. 이는 곧 혈처가 사격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 리조트 건물과 같이 혈처가 용호의 면(面)이 아닌 배(背)에 위치하는 경우, 장풍을 이룰 수 없어 길지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산의 외부 형상이 부드럽거나 유하지 않은 곳, 장릉과 같이 경사가 급한 곳이나 허모한 곳, 요결한 지형과 수삭한 지형 등은 모두 흉한 곳으로 판단한다.

셋째, 득수의 여부이다. 풍수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J-시청 건물과 같이 물이 흘러지는 곳이나 메마른 지역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특히 목성수와 반궁수, 복합 리조트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직거수 지역은 모두 혈처와 무정하여 재물이 쉽게 빠져나가는 흉한 물길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득수를 이루지 못한 곳은 흉지로 간주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21세기 디지털 혁신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자연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 심리적·정서적·신체적 안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흉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지속 가능한 공간 실천 방안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축과 도시설계 분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시한다. 흉지로 간주되는 곳은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역이나 막다른 지역, 또는 통풍이 원활치

않은 습한 지역이다. 이처럼 환경적 위험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는 지역에 홍지 개념을 적용한다면 도시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유의미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간 활용을 통해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공간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결국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인간의 자발적 실천이다. 홍지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수용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변화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간을 단순한 배경이 아닌 삶의 능동적 조건으로 인식함으로써, 공간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는 홍지의 다양한 이론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학술논문 성격상 임상자료를 게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더 많은 예시를 제시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이기도 하다. 홍지에 관한 연구는 단순히 정성적 영역의 한계를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하는 인문학적 탐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풍수가 단지 전통의 산물이 아닌 건축과 문화·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와 화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사료

『堪輿漫興』, 『管子』, 『錦囊經』, 『山林經濟』, 『雪心賦』, 『陽宅十書』, 『陽宅集成』, 『禮記』, 『二程集』, 『周易』, 『弘濟全書』, 『擇里志』

단행본

- 곽 박, 오세종 역, 『해설 청오경』, 삼필문화사, 2007.
박정해, 『풍수역사이론비평』, 민속원, 2018.
복응천, 신평 역, 『풍수학 설심부』, 관음출판사, 1997.
서선계·서선술, 김동규 역, 『人子須知』, 명문당, 1992.
沈 鎬, 허찬구 역, 『地學』, 육일문화사, 2001.
양균송, 김두규 역, 『감룡경·의룡경』, 「第五編」, 비봉출판사, 2009.
장태상, 『風水總論』, 한메소프트, 2011.
蔣平志, 『水龍經』, 海南出版社, 2003.
정경연, 『정통풍수지리』, 도서출판 평단, 2003.
조정동, 신평 역, 『지리오결(地理五訣)』, 동학사, 1993.
청오자·곽 박, 최창조 역,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蔡成禹, 김두규譯,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최원석, 『사람의 지리 우리 풍수의 인문학』, 한길사, 2018.
K.S데이비스 & J.S데이저, 소현수譯, 『물』, 현대과학신서, 1976.

연구 논문

- 김응석, 「청와대의 풍수 입지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박정해, 「풍수논리 속의 물(水)」, 『민족문화논총』 60, 2015.
임수현, 「물의 이미지를 통한 심상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정영진, 「물의 상징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지중학, 「風水地理 藏風局과 凹風地의 住居環境 特性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3.

천인호, 「양택풍수의 택지론과 현대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77, 2020.

홍수희, 「물의 유동성의 표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기타자료

구글어스, <https://earth.google.com>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

대전소리통, <https://goldcham.tistory.com>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HUNG-JI FROM THE PERSPECTIVE OF JANGPUNG-DEUKSU

SON SEOHOO (SON, SEO HOO)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Hung-ji (凶地), or inauspicious sites, from the perspective of nature and life, and analyzes their types to understand their impact on human life and activity. Based on feng shui principles—particularly the concept of Jangpung-Deuksu(藏風得水) the research examines the spatial features and influence of such sites.

Classical texts such as 『Cheongogyong(靑烏經)』, 『Geumnanggyeong(錦囊經)』, 『Jiri Inja Suji(地理人子須知)』, 『Seolsimbu(雪心賦)』, and the 『I Ching(周易)』 form the foundation of the study. The importance of water(得水) in feng shui is also discussed. By presenting real cases of Yin-Yang Houses located in inauspicious areas, the study gives concrete form to abstract feng shui concepts and enhances its practical relevance.

Findings show that when the flow of energy from the main mountain is blocked, the protective embrace of the landscape is weak, or water is not well-placed, Hung-ji characteristics become evident—often leading to negative effects on human life. However, such conditions can sometimes be improved through corrective feng shui methods (Bibo, 裨補). Thus, feng shui should be seen as an interactive spatial philosophy, with potential

장풍득수(藏風得水)의 관점으로 살펴본 흙지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연구

to inform not just personal well-being, but also architecture, culture, and environmental design.

Key Words : Feng Shui, Hung-ji, Eumtaek, Yangtaek, Water

